

“민주주의 꽃, 불교 힘으로 다시 피우세”

광주불교계, 5·18 33주기 추모행사 연달아 개최

한국 현대사의 큰 아픔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불교계 행사가 광주 전역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상임대표 정선)는 5월 23일 오후 7시 광주 원각사에서 '5·18민주화운동 33주년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오월의 꽃, 통일로 다시 피어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모법회에는 이신 통일사회연구소 소장의 5·18이야기를 시작으로 범능 스님, 류의남, 류상호 님의 추모곡 헌사, 김경일 시인의 추모시 낭송 등이 진행된다.

광주전남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이종표)도 22일 오후 7시에 선덕사 앞마당에서 '밤살골 오월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월 영화 '26년', 난타공연, 오월 사진전, 체험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인)도 18일 오전 11시 민주열사들이 모여져 있는 망월동 묘역에서 '제6회 해원군 및 추모박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게 항쟁하던 시민군들이 함께 나눠먹었던 주먹밥이 참배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망월동 묘역은 당시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시민들을 매장했던 장소로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행사에는 '5월 비나리를 모시는 사람'

광주불교NGO, 원각사 추모법회

불교환경연대, 망월동 주먹밥 나눔

광주인드라마, 선덕사 오월한마당

들', '시하나 노래하나', '푸른연극마을' 등 시민·공연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또 취지에 동참하는 박양희, 한보리, 인디언스니, 강숙향, 주권기, 신동호 등도 추모곡 등을 부른다.

망월묘역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사람사는 세상의 자유와 아름다움을 위해서



2010년 원각사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추모법회 모습.

역사와 민족 앞에 스러져간 이들을 기억해내고자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5·18 당시 희생당한 시민들 중에는 불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계엄군의 시민을 향한 집단발포가 진행된 1980년 5월 21일이 부처님오신날이었기 때문이다.

음력 4월 7일인 5월 20일 저녁 계엄군의

첫 발포 이후 분노한 광주시민들과 불자들은 광주 충정로,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이들을 향해 계엄군은 재차 발포해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당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전남지부장 김동수 열사가 계엄군의 총탄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꽃피움절, '자녀를 위한 기도' 높은 호응



꽃피움절의 자녀기도에 앞서 참석자들이 소원등을 받고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사회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법회가 눈길을 끈다.

광주 두암동 꽃피움절(주지 목연)은 매월 관음재일에 자녀를 위한 기도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녀를 위한 기도법회에는 20여 부모들이 저마다 촛불을 켜고, 자녀들의 건강할 성장을 바라는 기도를 진행한다. 이번 기도회는 1년째, 기도를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목연 스님은 "벚꽃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녀들에게 부

처님의 좋은 기운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도에 참여한 김혜숙 씨는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1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고 작은 딸은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며 밝게 웃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지사 지역민 위한 보시행 화제



천지사 주지 도성 스님이 소년·소녀 가정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화순 천지사(주지 도성)는 5월 12일 화순문화광장에서 '제4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화순지역 소년소녀 가정들에 장학금과 생활필수품이 전달됐다. 행사는 대한불교선각종(총무원장 정안)의 후원으로 화순군속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화순전대병원, 화순군대학구조대, 화순군자율방범대, 화순연예협회, 화순군상가변영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에서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생체무용단의 식전행사로 시작된 행사는 장학금 전달, 선각종 총무원장 정안 스

님의 격려사, 초청가수, 하나무용단의 공연이 뒤를 이었다.

정안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사찰과 시민단체에서 나눔 행을 펼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이들에게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순의 군민들이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불자가수 허미라, 김해중, 정현, 류경 등이 흥겨운 노래를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자비광명의 연등 물결 넘쳐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는 3000여 대중이 운집해 불법홍포를 발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세계평화와 국민태만, 민족화합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전북도내 주요도시에서 봉행됐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5월 11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이번 축제에 앞서 지난 5월 4일 덕진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큰 잔치에서 입상한 청소년들에 대한 시상식과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 보존제 스님들이 영산 무공연을 진행했다.

이러진 범요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원행 스님, 태고종 전북중

무원장 도광 스님 등 전북사찰 주지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각급 기관장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실행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전북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대회사에서 "모든 이웃들을 자기 생명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체대비의 실천자가 되기 바란다"며 "세계 평화와 민족대화합이 반듯이 이뤄져 자유로운 삶이 성취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밖에 익산 군산 김제 등의 전북도내 주요도시에서도 연등축제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군산교도소 수계법회 봉행

순간의 실수로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거듭났다.

고창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5월 13일 군산교도소 강당에서 봉축 수계법회를 열고 김동진(가명) 외 34명의 재소자에게 삼귀의계와 5계를 내렸다.

수계법회에서 범만 스님은 "계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얻는 것과 같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영어의 몸이 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중생을 위한 참회의 삶을 살면 광명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번 군산교도소 수계법회에는 선운사 총무국장 심학 스님, 재무국장 진용 스님, 군산 동국사 종결 스님, 관음사 도천 스님, 성흥사 송철 스님과 김진수 前전북포교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선운사는 이날 군산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간식과 합장주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위, 임실 탄약창 위문법회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5월 12일 전북 임실 제6탄약창(창장 서호일) 호국 장영사에서 봉축 연등축제와 장병 위문법회를 개최했다.

위문법회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서원노인복지관장 보연 스님, 포교국장 보룡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전북포교사단장, 서호일 창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성강 호국장영사 지도법사는 "지역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위문법회와 연등제를 봉행하게 됐다"며 "창장님 이하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군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호일 창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장병들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지역의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법회에 앞서 장병들은 교리퀴즈대회와 독경대회, 장기 자랑대회를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 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